



공연시작을 알리는 전통북공연.



청담문화센터 수강생들의 경기민요 공연.



경기민요 이수자 방인숙(앞줄 중앙)씨와 문화생들이 아리랑을 불렀다.



청담문화센터 소속 B-boy팀 '런피플 브레이크댄스' 팀의 공연.



흥이 오른 미군들도 무대에 뛰어올라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다.

미군과 한국 B-boy 신나는 춤 한마당



“한국문화 대단해요!” 주한미군 제3지역 캠프 험프리스 소속 신병 80여 명이 공연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디카나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장면도 있었다.

interview — 청담문화센터 이근우 원장

“한국주둔 미국신병들에 우리문화 소개합니다”

“늦어도 2013년까지 미군 용산기지가 평택 기지로 이전완료될 겁니다.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을 환영하느냐 안하느냐를 떠나서, 평택에 주둔하게 될 미군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은비 기자

지난 4월 20일 문을 연 청담문화센터 이근우 원장은 미군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친선 대사로 자칭하고 나섰다. 앞으로 신병과 한국을 찾는 미군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민요, 전통악기 연주, 현대무용 등의 공연을 통해 한국문화를 보여주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미군신병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부대가 펼치는 New Commers Brief Tour와 셋째 주 화요일에 미군 배우자들을 위한 Spouses Orientation Tou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담문화센터 문화공연을 넣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원장은 “이곳이 미군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부처님 법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미군이 평생을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곳이 미군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부처님 법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미군이 평생을 주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미친선 문화교류한마당 ‘제1회 청담문화공연’ 현장

한국에 주둔한 미군신병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한마당이 열렸다. 평택 청담문화센터(원장 이근우)가 12월 11일 개최한 ‘제1회 청담문화공연’ 현장은 감동과 웃음 바다였다.

이번 공연은 매월 한국에 첫 부임하는 주한 미군장병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해 한미 양국 간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친선을 돈독히 다지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청담문화센터에 출강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쳐 온 유범중 주한미군 제3지역 지원 사령부 공보관에게 이근우 원장이 이 같은 문화공연을 제안하면서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초대된 미군장병들은 청담문화센터에서 불과 1.5km정도 떨어진 주한미군 제3지역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소속 신병들이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채 안된 신병들 80여명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청담문화센터 평생교육관 2층 대강당을 가득 메우자 ‘한국의 안보를 위해 이 땅을 찾은 동맹국 여러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멘트가 울려 퍼졌다.

#미군들도 무대 올라 춤추며 함께 어우러져

이어 방인숙(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이수자) 선생과 학교법인 청담학원(이사장 해자) 산하 청담중 국악반 청소년 15명이 선보인 장구연주와 경기민요 가락으로 공연이 시작됐다. 박성실(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이수자) 선생과 문화생들의 고전 무용 ‘태평무’, 창작무용 등을 지켜보던 미군들은 이어서 무대에 오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

제 이석씨의 유창한 영어인사에 환호를 보냈다.

황실문화재단 총재 자격으로 이날 공연에 참가한 이석씨는 “한국은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한다”며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나를 부드럽게 사랑해 주세요(Love Me Tender)”를 열창해 미군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무대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것은 청담정보통신고 졸업생 복영민(28)씨가 이끄는 청담문화센터 소속 B-boy그룹 ‘런피플 브레이크댄스’ 팀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부터다. 가야금과 대금소리가 어우러진 강한 비트의 배경음악에 맞춰 ‘런피플 브레이크댄스’ 팀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미군들은 일제히 환호를 보내며 손을 흔들었다. 특히 B-boy들이 고난이도 헤드스핀(바닥에 머리를 대고 빙글빙글 도는 묘기)과 몸을 공중에 띄워 정지시키는 프리즈 동작들을 선보이자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급기야 몇몇 헬기 넘친 신병들이 무대에 뛰어올라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며 함께 어우러졌다.

#한국전통 북소리 기쁨을 울리네

한국인 B-boy들과 함께 신나는 춤을 췌던 라이트(22) 이병은 “한국에서도 브레이크 댄스를 접하게 될 줄 몰랐다”며 “한국인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웠다. 또 다른 신병인 윌리엄 스티븐슨(28) 이병도 “태권도의 나라 한국에 와서 기쁘다”며 “맨 처음 연주했던 한국전통 북소리에 기쁨이 울리는 듯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공연을 감상한 미군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미리 연습해온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를 복창하고 청담문화센터를 떠났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얏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 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약쑥양초

- 1) 원기둥 7.4φ × 30Cm
- 2) 돈타레 5.6φ × 27Cm
- 3) 약쑥향 1호 5.9φ × 20Cm
- 4) 약쑥향 3호 4.7φ × 13Cm
- 5) 약쑥향 4호 4.7φ × 10Cm
- 6)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식물성 양초

-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 2) 식물성양초 돈타레 5.6φ × 27Cm
- 3) 식물성양초 밀대 4.6φ × 26Cm